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0월 11일(금)

...(음력 9월13일)...

Пятница

11 октября 2019г.

№ 40(11685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5일(토) 오후 4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제7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 추도·환송식이 진행되었다. 사할린 한인 주님비들에 참배하는 유족들의 모습. (관련 기사 2, 3면)

(이예식 기자 촬영)

제 2회 <아시아의 아이들> 청소년국제동계스포츠 대회 사할린에서 개최

2021년 제2회 <아시아의 아이들>청소년 국제동계스포츠대회와 2014년 알파인스키 세계선수권 대회를 사할린주에서 개최하기로 올가 골로제츠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재의 주재로 진행된 러시아 체육부 산하 부서 간협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사할린주의 대규모 스포츠 경기 개최를 사할린주 정부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이 주장했다.

"사할린주는 다양한 규모의 경기를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할린 지역 스포츠 산업의 세계적인 개발과 제반시설 구축이 이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2월에 시작돼 2022년에 결승전이 치러질 시각장애와 근골격계 장애 스포츠 선인들이 겨룰 세계 알파인스키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2021년 <아시아의 아이들> 동계 스포츠 경기는 사할린의 스포츠 팬들과 선수들을 환호하게 할 것이며 2024년에는 알파인스키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주요 행사들을 높은 수준으로 치름으로써 사할린은 다시 한번 스포츠에 대한 무궁한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라고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은 강조했다.

올 2월 제 1회 <아시아의 아이들> 청소년 국제 동계 스포츠 대회에는 해외 20개 국가와 러시아 내 8개 지역에서 경기에 참가했던 것을 상기한다. 청소년 선수들은 총 8개 동계스포츠 종목(바이애슬론, 스노우보드, 피겨스케이팅, 하키, 스키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 쇼트 트랙, 스키 점프)에서 메달을 두고 경쟁했다.

이투루프 양어장으로 연어 어획량 크게 증가

연어 어획량의 증가에 대한 소식이 주지사의 사할린주 섬 시찰 중 전해졌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연어 양어장을 방문해 성어기 연어들의 진입 속도를 평가하고 구역 시설 정비와 신축 건물의 진행 과정을 시찰했다. 현재 이투루프 구역에는 9개 양어장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인공 바다 <라군>과 바닷물을 이용해 연어와 송어의 치어들 양식에 독특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록적인 어획량이 입증하는 바로 양어장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작년에 이투루프에서는 10년 전 어획량의 1000배나 증가한 약 2만 톤의 연어를 사할린 지역에서 어획했다. 올해 생산량의 총결산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나 이미 11000톤 이상을 어획한 상태다.

주지사는 레이도워 마을에 신축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했다. 건물 건설은 예정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건물 내에는 교실과 작업실, 도서관, 체육관이 배치된다. 이 기획에는 의료실, 조리실, 식당과 강당도 고려되었다. 학교 구역에는 휴식 공간과 놀이터 및 운동장도 자리하고 있다. 3층 건물의 교사는 2021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나 현재 건설 속도로는 예정된 기한보다 일찍 완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물론 새로운 학교가 마을에 필요하지만 건축 과정상 모든 기술적인 과정들을 준

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방의 지도부는 작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감독 관리하고 시공자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시설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며 품질 또한 보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도워와 키토워에 마을에서 주지사는 건축 중인 정부 청사와 주택들을 시찰했다. 주거지에는 총 4동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 주택들은 노후 주택과 파손 주택으로부터 주민들 이주와 지역에 새로운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데 있다. 이후 레이도워 마을의 노후 주택 문제는 사실상 완전 해결되는 셈이다. 또 하나의 시찰 대상은 도보 구역으로 이 도보 구역은 쿠릴스크시와 키토워에 마을 사이 해안가를 따라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기획에는 관광 공간과 휴식 공간이 포함돼 있으며 버스 정류장들도 고려되어 있다. 총 도보 구역의 길이는 약 3km정도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 기획은 관광객을 포함해 전 쿠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보 구역의 탄생으로 도시의 면모를 개선시켜 중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할린주 주변 도시로 주지사의 시찰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점에서 이 시찰을 통해 공적 공간의 시설 정비와 도로 건설, 노년 수리의 문제들에 관련된 중요한 해결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단신

리마렌코 주지사, 푸틴대통령과 만나

지난 9일(수) 모스크바 클레블리에서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이 9월 8일 새로 선출된 러시아 지방행정부의 지도자 1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초대받은 사할린주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은 선거전에서처럼 열심히 일하길 기원했다고 전해졌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가장 큰 보물은 사람들이라면서 주민들의 신뢰 없이는 큰 프로젝트들을 이룰 수 없었다고 강조하며 이들을 위해 충심으로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농업부와 식품상업부 합병

사할린주 정부는 최적화와 관리 개선을 하기 위해 주 농업부와 주 상업식품부를 합병하기로 했다. 주 농업식품상업부의 장관으로는 주 상업식품부 인나 파블렌코 장관이 임명되었다. 농업부 장관인 드미트리 레와는 사퇴를 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한국교육원, 무술대회 개최

오는 13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사할린한국교육원 주최로 무술대회가 개최된다. 이에 사할린주의 태권도협회, 킥복싱협회, MMA협회, 가라데교쿠신카이협회, 가라데당수도협회 선수 약 5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승자들은 10월 19일 대구에서 진행될 국제종합무술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사할린주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종합무술대회의쿠빈으로는 남인도 국제당수도연맹 총재가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할린 통계국, 내년 전국 인구 조사 준비 실시에 발표

2020년 10월에 러시아에서 다시 통합 인구조사가 실시된다. 러시아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2010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정보를 최신화 해야할 시기다. 사할린에는 조사진과 감독관들 약 1,500명이 인구조사를 할 것이라고 지난 3일(목) 사할린 통계국에서 있는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다. 전문가들은 인구조사를 신속하게 조사하는 법을 설명했다.

이번 인구조사는 12번째인데 러시아 역사상 디지털 방식으로 실시되는 첫 인구조사가 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지역 언어와 민족 구성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교육, 이주, 혼인 사실 관계와 주거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예정이다.

이러한 통계는 러시아 정부가 국가 및 사회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통합 인구조사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사회학적 연구이며 결과가 나오면 여러해 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7면에 계속)

사할린 한인들의 가족사는 잊을 수 없는 비극, 아물지 않는 상처

제7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봉환 추도 및 환송식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5일(토) 오후 4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제7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봉환 추도식과 환송식이 진행되었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한국으로 이미 71위를 봉환했고 이번에는 14위를 조국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유족 16명이 사할린을 찾았다. 이날 유족을 대표하여 이희권 님께서 추모사(본문 전체 3면에 게재)를 낭독한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관객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의 추도사를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정구창 단장이 대독했다. "사할린으로 끌려가신 분들은 광복 후에도 미수교된 구소련과의 관계로 귀국길마저 끊어지면서 반세기가 훨씬 지나서야 일부나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고국이 아닌 해외에 잠들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부는 희생자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보듬을 수 있도록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봉환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이날 사할린주 경제개발부 워토토리아 와실렙스카야 대외경제·지역 간 교류 및 국제협력국장장과 러시아 외무성 블라지미르 노소브 사할린 대표가 러시아 정부 측을 대표해 추도사를 전했다.

이들은 러시아와 한국이 이 사업에서 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추도식은 역경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은 "저를 비롯한 한국인은 오늘 두 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으로 태어나 질곡의 현대사에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고 갈 수 있어 다행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저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세에 흔들림 없는 강인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한 국제적 협력과 포용의 정신을 고양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세계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라는 소감을 표명했다.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희생자들과 그 유족 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온전히 공감한다며 유족 및 친지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부당하게 희생된 영령들 앞에 이 비극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을 고개 숙여 약속한다는 사할린 한인들의



뜻을 전했다.

이날 유가족들을 비롯해 공식 인사, 일반 시민 모두 각각 모국으로 봉환하게 될 14위에 묵념하고 흰 국화를 헌화하며 추도할 수 있었다.

유족들은 유해가 담긴 용기를 메고 한인문화센터 앞에 세워진 사할린한인희생자위령비와 및 이중징용탄부추념비에 인사를 드리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모국으로 송환된 유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빠찌레치에(홋스쿠구역), 체호브(홋스쿠구역), 네헬스키시, 돌린스크시, 소스노브카(돌린스크구역), 우글레자워드스크(돌린스크구역), 빅코브(돌린스크구역), 와흐루예브(포로나이스쿠구역) 공동묘지에서 발굴하고 화장 수습했다.

유가족은 다 사연이 있었다. 그중 완전한 한국인도 있었고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분들도 있었다.

안산에 계시는 김경선 씨(1938년생)는 1965년 1월에 사할린에서 귀환을 요청하는 김영배(1992년 사망) 아버지와 자녀가 없는 김영기 삼촌(1974년에 사망) 2위를 모시기로 했다. 사

실 코르사코브에 계시는 배 다른 여동생들은 처음엔 반대했다. 이곳에서도 잘 돌봐주고 있다고 하는데 오라버니가 장남이고 항상 고국에 가고 싶어 하시던 아버님을 생각해서 이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김영배 어르신은 1991년에 딱 한번 모국방문을 하고 아들과 만났다. 그리고 다음 해 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고향으로 떠나는 길에 거의 모든 가족들이 배웅하러 왔다.

얼마 전에 새고려신문에 어머니에 대한 글을 두고한 박정순 씨도 김순복 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 문화센터를 찾았다. 아버지를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친 오빠가 모시러 왔다. 아버지를 모국으로 모실 결정은 가족회의에서 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들의 어머니가 귀국하셨기 때문이다.

유해를 모시러 온 분들은 거의 다 남성들이었다. 그래서 유골을 봉환하러 온 정순덕 여사님이 더욱더 눈에 띄었다. 며느리로서 그는 강판남(강재성) 시아버지의 유해를 천안 납골당에 모시려고 왔다. 사할린에서 잘 알려진 고 강영복 유즈노사할린스

사할린 강제동원 유해봉환 사업 경과 보고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 동 법률에 따라 총 22만여 건의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조사하였다.

○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총 66개 공동묘지에서 15,110기의 한인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 확인된 한인묘지 중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3년 8월, 코르사코브 공동묘지에 매장된 고 유흥준님의 유해봉환을 시작으로,

○ 2014년 18위, 2015년 13위, 2016년 11위, 2017년 12위, 2018년 16위를 봉환하는 등 지금까지 총 71위를 봉환하였다.

크경제법률정보 대학 총장(작년에 사망)의 부인인 그는 남편 살아 생전에 아버지의 유해를 봉환 하려고 했다고 한다. 남편이 먼저 갔지만 이 결심을 이루기로 했다. 6년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38년간은 제사모 모셔야 했던 정순덕 여사는 "남편은 천안의 망향동산에, 시아버지는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 납골당에. 옆에 계실거니, 남편을 찾아갈 때 아버님도 찾아볼 수 있다."며 "그러면 아버지도 될 외로울 겁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아들 셋을 혼자 키우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했다. 그의 남편은 장남이었고 동생들은 대륙에서 살고 있어서 사할린도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며 유해봉환 결정을 설명했다.

강제동원된 사할린 한인들의 가족사는 잊을 수 없는 비극, 아물지 않는 상처로 유해봉환 추도식은 다시금 이 사실을 확인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사할린주 저소득층에 식품세트 지원 확대

10월1일부터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 자년을 둔 저소득층 가정에 식품 세트를 확대했다. 현재 전해진 바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원 수를 살펴 추가 지원을 고려함으로써 다자녀 부모들은 특별 추가 보조금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부 가족정책과 고문인 김 엘레나에 따르면 전에는 가족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각 가정에 동등한 지원금 규모가 2500루블리였고 쿠릴 열도와 사할린 북부지역은 3000루블리였다. 지금은 이런 정책이 변경되어 가정의 각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1900루블리가 배당된다. 쿠릴과 사할린 별도의 지역은 2050 루블리가 배당된다.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은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저소득층 가족 지원은 일사분기(일년에 4번) 종합식품 형태로 제공한다. 종합 식품세트에는 육류 통조림, 연유, 곡물, 마카론,버터,차,생선 통조림 등, 지금은 신선한 생선이 추가되었다.

주 정부 정보에 따르면 올해 식품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지원은 1만7천 다자녀 가족이 받게 된다고 전했다. 사할린에서는 총 200여 개 지원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 가장 인상적인 정책 목록의 하나는 2019년 주민들 사회적 지원 예산에 추가적으로 10억 루블리가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еличил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корзину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 1 октября увеличили продуктовую корзину.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особенно прибавку ощутят многодетные родители, ведь теперь ее буд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исходя из количества членов семейства.

По словам советника отдела семейной политики минсоцзащиты Елены Ким, ранее размер субсидии в денежном эквиваленте составлял 2500 рублей на каждую семью, независимо от количества человек. Для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 север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сумма достигала 3000 рублей. Сейчас же система изменена —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или родителя выделяют 1900 рублей, а для Курил и отдале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районов — 2050 рублей. Мэру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ая действовала с 2017 года, расширил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Такую помощь семьи с небольшим достатком могут получать в виде набора продуктов раз в квартал. В него входит тушенка, сгущенка, крупы, макароны, масло, чай, а к рыбным консервам теперь добавились еще и свежая рыба.

По информ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текущем году адресную продуктовую помощь получают 17 тысяч семей с детьми. А всего на островах действует порядка 200 льгот. Этот список один из самых внушительных в стране, на соцподдержку жителей в 2019 году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ыделили около 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사할린의 작은 도시가 전 러시아 대회에서 150 만 루블리 상금 획득

전국 <지방 모범 사례> 경연대회에서 사할린의 토마리시가 상을 받았다. 10개 경쟁 도시들을 능가한

토마리시는 순위상 3위에 올라 상금 156만 루블리를 획득해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주 정부 정보에 따르면 토마리시는 전국 62개 지역의 204개 도시들과 경연을 벌인 가운데 러시아 연방 정부가 경연에 제출된 지원서를검토했다. 그 결과 사할린의 작은 도시는 <주민과의 효율적인 피드백 제공>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 토마리 구역은 크지는 않으나 11개 마을에 약 8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주 정부는 토마리 구역은 여러 방면에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아직 지역에서 대중적인 공동체 결성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역공동 자치(ТОС)라는 공동체를 운영했다. 2017년 말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무렵 토마리에는 이미 전 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이끈 7개의 지역 공동 자치가 있었다. 이는 극동지역에서는 우수한 수치였다. 2016년 토마리에서는 자발적인 예산 프로그램을 작성해 그 일환으로 지역 공동 자치 일원들은 자신들의 기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2018년에는 고학년생들이 적극 나서 <청년 예산>주기회에 참가한 덕으로 토마리는 운동을 위한 마당과 일린스코예 구역에 자전거 트랙, 크라스노고르스크 구역에 명절 행사를 위한 학교 내 행사장, 펜젠스코예 구역에 축구장을 유치할 수 있었다.

전국 경연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지방 당국은 주민들이 바라던 선도적 생활을 실현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작년에 토마리 주민들은 중요한 사업 방향—도로 수리, 신축 아동 및 체육을 위한 공간, 휴식을 위한 장소의 시설 정비—들을 제시했다.

(8면에 계속)

한글날 맞아 한국어교사 연수 개최



지난 9일 오후 3시 573돌 한글날을 맞아 사할린 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 엘비라) 한국어과 교실에서 사할린 한국어 교사협회(회장 코르네예와 인나)와 사할린 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 공동 주체한 한국어 교사 연수가 열렸다.

이틀간 진행된 이 연수에는 대학교수, 한국어 교사, 지방 한글학교 강사, 예비 교수 및 학생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코르네예와 인나 회장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김주환 사할린 교육원장의 특강, 경희대 박동호 교수등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한편 별도 행사로 573돌 한글날을 기념회 붓글씨 쓰기 행사를 가졌다.

(취재: 김진석)



추모사

그리운 아버지!

길고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당신 앞에 섰습니다. 제가 세 살 때 아버지께서 일본 북쪽 끝에서도 삼천리를 더 들어간 곳에 끌려가셨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 들었습니다. 멀고 먼 그 곳이 동토의 땅 사할린이라는 것은 다 커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라고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당신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정화수를 떠다놓고 아버지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빌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아들 하나를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시던 어머니는 한국전쟁 중에 행방불명 되셨고, 저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큰아버지를 따라 먼저 피난길에 오른 저를 찾아 길을 나섰던 어머니가 그만 소식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형편에 남들처럼 학교를 다니기도 쉽지 않았고, 큰덕을 떠나 혼자 서울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일거리를 찾아 노숙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아버지가 살아계실까 소식이 궁금하여 대구중소이산가족회라는 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마당』이라는 잡지에 아버지의 사진과 사연이 실린 것을 본 조카가 한달음에 달려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아버지와 연락이 닿게 되었던 것이지요. 편지로 '좋은 이웃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도리어 한국에 있는 저와 가족들을 걱정해주셨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일흔이 훌쩍 넘은 노인이 된 지금, 사랑스러운 손자들을 볼 때면 늘 '귀중하고 어여쁜 두 손자에게'로 시작했던 아버지의 편지가 생각납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홀로 달래셨을 아버지가 그려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모질고 긴 세월을 보내셨겠습니까!

결국 고국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어느덧 삼십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만나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아버지!" 불러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희권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 너무 늦게 찾아온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워하셨을 고국으로 모셔갈 수 있게 되니 꿈만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떨어져 지낸 세월 동안 겪어야 했던 아픔과 또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운 아버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영령들이시여, 잠시 후면 당신들께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부디 이 곳에서의 고통과 슬픔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고국의 품에서 평안히,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2019년 10월 5일

모든 유가족들을 대표하여 이희권 올림

제9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 '개막'

전세계 32개 도시에서 50여 명의 한인 언론인 참석

'한반도 평화정착'과 '제21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주제로 밀도 높은 논의 전 세계 재외동포 한인 언론을 대표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 이하 세언협)가 10월 7일(월) 개막식을 시작으로 4박 5일간의 국제심포지엄을 시작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재외한인 언론인들은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 흐름 속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견인할 재외동포사회의 역할과 내년에 실시될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현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경상남도 진주시와 산청군을 방문해 남강유등축제와 산청한방약초축제를 현장 취재하고, 2020 함양 산삼 향노화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함양군 관계자들을 만나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하게 된다.

전세계 20개국 32개 도시에서 50여 명 참가

7일(월)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 3층 아트리움에서 열린 개막식은 재외 한인 언론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동포 언론인들의 단합을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는 전세계 20개국 32개 도시에서 50여명의 한인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180여개 한글 매체를 발행하는 한인 언론인들의 네트워크인 세언협은 이번 대회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재외동포와 언론의 역할'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재외국민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전용창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회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재외동포 언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

이 고민하고, 21대 총선 참여율 제고 방안을 진중하게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막식을 찾은 주요인사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한 세언협 총재 정영수 CJ글로벌 고문은 "주재국과 대한민국의 연결고리인 한인 언론인들은 최전방에서 통일 조국과 발전된 고국의 미래를 알리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기관 및 언론단체들이 한인 언론인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각계 인사들, 시의적절한 국제심포지엄에 관심 표명

이날 개막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과 세계한인총연합회 김덕룡 이사장, 해외교포연구소 이구홍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세계한인네트워크 김영근 대표,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주요임원진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전세계 한인 언론을 대표하는 언론인들의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은 2019 국제 심포지엄 주제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21대 국회의원 재외국민선거'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동포사회가 직면한 중대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해외 언론인들의 고민에 공감을 표시했다.

격려사를 전한 연합뉴스 조성부 사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재외동포 언론의 역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재외국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심포지엄 논의가 보람된 결실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7면에 계속)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컵, 홈스크 축구팀 수여



지난 6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공원 <코스모스>경기장에서 주 한인협회의 주최로 사할린주 한인디아스포라 미니축구시합이 펼쳐졌다. 경기에는 아니와, 코르사코브, 포로나이스크, 홈스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5개 팀이 참가했는데 10분씩의 두 타임으로 경쟁했다.

최종 결승전에는 홈스크 팀과 아니와 팀이 승부를 다투었다. 승리는 홈스크 팀이 가져갔고 3위는 포로나이스크 팀이 차지했다.

강력한 팀으로 알려진 빅코브축구 팀이 다른 경기로 인해 이번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주최 측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사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도 보통 팀 2개가 대표했는데 이번에 축구대회를 여는 날짜를 늦게 발표해서 여러 팀이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취재: 이에식기자)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 россиянам симпатия особая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о том, как выживает Страна Чучхе и чем торгует с Россией



Возможно, что за последнюю пару лет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ерестала 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ся такими эпитетами, как "взрывоопасная, балансирующая на грани ядерной войны, грозящая сорваться в пропасть крупномасштабного вооруж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однако до сих пор она выглядит весьма сложной и запутанной. Но в этом регионе присутствуют и буду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а та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ка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стается нашим соседом, с кем нам необходимо развивать взаимовыг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КНДР)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который давно работает в КНДР и является известным корееведом, в интервью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рассказал о том, что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ит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каком состоянии находятс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как Страна Чучхе выживает в условиях жесточайш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произошли скандальные инциденты с задержанием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ыбаков, которые вели браконьерский промысел в российских водах. При этом ранения получили четыре сотрудника погранслужбы России, которым корейцы оказали сопротивление. Были и потом крупные задержания браконьеров КНДР. Что бы вы могли сказать по поводу этих инцидентов?

Мацегора: Эти инциденты трудно обойти вниманием. Нам с корей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эту проблему надо решать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но действовать должн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Сложившаяся в наших водах ситуация не является какой-то частной инициативой на уровне капитанов отдельных рыболовецких шхун или кооператив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уда должны получать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ыход из своих вод, заправляться крайне дефицитным топливом, кому-то сдавать улов. Посольство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нимало эту тему в контактах с МИД, Минрыбхозом КНДР, обращалось даже в местную прокуратуру. Нас неизменно уверяли, что предпринимаются самые решительные меры, однако практических сдвигов мы так и не увидели.

Товарооборот России с КНДР остается минимальным, он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потребностям сторон.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изошло то, чт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должно было случиться, о возможности чего мы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едупреждали - произошло столкновение, погиб человек. Это большая трагедия, никакая рыба не стоит человеческой жизни, но виноваты в этом прежде всего те, кто от правил рыбаков на промысел в чужие воды. Надеемся, что случившееся заставит наших корейских коллег навести в этой сфере должный порядок. Конечно ж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усилия придется предпринять и нашим пограничникам.

- В апрел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приезжал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Тогда прошел первый саммит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Кимом. Каково сегодня общее состоян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Пхеньяном?

Мацегора: Конечно, для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тал упомянутый визит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Есть такая расхожая фраза: "Это событие придало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По поводу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го саммит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ожно ее исполь-

зовать. Наши корейские друзья вообще определяют этот саммит как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в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За истекшие месяцы уже состоялся обмен несколькими визитами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планируется еще целый ряд аналог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реди которых я выделил бы предстоящую поездку в Москву ново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НДР Пак Тхэ Со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говорить, что политический контакт между РФ и КНДР после Владивостока заметно активизировался.

А вот с экономическим аспектом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есть существенные проблемы. Товарооборот остается минимальным, он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реальным возможностям и потребностям сторон. Главной проблемой являются санкции, а также острая нехватка валютных средств у наших корейских партнеров. Корейцы много чего хотели бы у нас купить из той номенклатуры, которая не закрыта санкционными резолюциями, но нет денег.

- Наши товары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в КНДР, если у корейцев появятся деньги?

Мацегора: Конечно! Даже если сейчас пойти на местные рынки, то увидишь, что наших товаров и продуктов здесь очень много, корейцы их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купают. Это мучка, консервы, конфеты, печенье, колбаса, подсолнечное масло, маргарин, пиво, спиртные напитки, которые, хочу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не относятся к "люксовой" линейке и не подпадают под установленное резолюцией СБ ООН понятие "предметы роскоши". Здесь есть даже несколько так называемых русских магазинов, где продают товары для те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работали в России и успели полюбить наши "специальности" - воблу, селедку, семечки, гречку и т.д.

Но не только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из России нравятся корейцам.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ы наши лекарства. Дело в том,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вс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фармакология "заточена" под российские/советские препараты. В ассортименте любой из корейских аптек добрая половина лекарств - из России. По нашей оценке, общий объем таких поставок составляет не менее 1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в год.

Здесь есть даже несколько русских магазинов, где продают товары для те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работали в России.

Своей нефти у корейцев нет, поэтому все нефтепродукты сейчас они покупают в России или в Китае. Наши поставки, правда, гораздо скромнее по объему, но зато мы даем качественный товар, в том числе высокооктановые бензины и зимнее дизтопливо. В КНДР уважают наши автомобили, оборудование, станки, считая их надежными, безотказными и приспособленными к жестк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Корейцы край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получен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лектующих для построенных еще при советском техническом содействии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до сих пор работают благодаря "неубиваемой" технике, полученной в свое время из нашей страны. Пока же среди импортных товаров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рынке доминирует китайская продукция.

- Как северо-корейцы в целом относятся к россиянам?

Мацегора: Отношение очень хорошее. Так было раньше, так остается и по сей день. Не ошибусь, если скажу, что к россиянам здесь испытывают какую-то особую симпатию. То, что было заложено доброе, положительное нашими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ми в 1940-е, 50-е, 60-е годы в плане восприят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ССР/России, до сих пор очень глубоко сидит в душах граждан КНДР.

У меня такое ощущение, что нынешнее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такое поло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России поощряет. По ТВ Кореи регулярно показывают наши фильмы, сюда нередко приезжают наш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музыканты, в любом корейском ресторане можно услышать нашу музыку, увидеть спортив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их каналов, в киосках на улицах в наличии сотни дисков с российским контентом, в том числе по исторической документалистике, различным отраслям знаний. У рядов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ца очень поло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россий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 нашему президенту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а это немаловажно для местной ментальности.

- Что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ит с, пожалуй, единственным действующим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крупным проектом "Хасан - Раджин"?

Мацегора: Этот проект - пример того, как американцы сумели запуга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е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 Напомню еще раз: "Хасан - Раджин" не подпадает под санкции Совбеза ООН, он выведен из-под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 Мы дали туда солидные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я, создали хорош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и ей мож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Однако очень многие бизнесмены, как наши, так 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боятся подпасть под односторонние санкции США. И это очень грустная ситуация. Сохраняется еще надежда, что южнокорейцы, как и планировалось ранее, вернутся к идее транзитных поставок российской угля и других товаров через Раджин в ПК. Однако и здесь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деструктивная роль Вашингтона, который блокирует любые намерения Сеула по развит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 Есть и другое масштаб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и КНДР - э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рабочая сила, которая трудится в РФ. Но все это подпало под санкции и что в итоге ждет эту сферу?

Мацегор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возвращаются домой. После 22 декабря 2019 года ни од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КНДР с рабочей визой в паспорт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не останется. Это предписан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резолюцией Совбеза ООН, и Россия ее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выполнит.

- О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зачастую приходится слышать полярные оценки и высказывания. Не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что страна на грани глубочайшего кризиса,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Пхеньяне строят новые современные жилые кварталы с небоскребами, страна умудряется успешно запускать ракеты, что говорит все же о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развит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науки. Да и обещанного некотор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краха системы до сих пор не произошло?

Мацегора: Скажу однозначно: утверждения, что КНДР стоит на порог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аха,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Хотя проблем, конечно, много, и существенная их доля - последствия санкций.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целом, то, по нашей оценке, положение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остается примерно на одном уровне. До начала 2018 года, пусть с разной динамикой, но наблюдался рост, затем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 проседание, во многом из-за резкого падения объемов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Главная проблема - уменьш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 зарабатыванию валюты, конкретно - прекращение поставок в Китай угля (ранее они достигали 25 млн тонн в год), а также железной руды и ряда других массовых товаров.

Однако затем северо-корейцы смогли приспособиться к новой ситуации и остановить падение экономики. Этого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за счет мобилизации внутренних ресурсов,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и ускоренного создания ряда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Страна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свои уник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 части адаптации к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м внешним условиям.

Главная, ставшая хронической, проблема для экономики КНДР - это острый дефицит инвестиций - иностранные сюда не идут, своих собственных остро не хватает. Без эт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которая нуждается в обновлен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порядок не приведешь.

И все же дальнейшего спада в экономике КНДР не происходит. Те новые механизмы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которые были введены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позволяют корейцам оставаться на плаву, выжива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определенный, пусть не очен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развития.

- Под этими механизмами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вы имеете в виду реформы, которые под разными названиями проводят в КНДР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Мацегора: Как известно, в самой КНДР слово "реформы" не употребляют, а ис-

пользуют формулировку "меры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народным хозяйством". Они, эти меры, очень специфические, очен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они, я бы сказал, не похожи ни на что. Некоторые эксперты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КНДР использует опыт Китая или Вьетнама, но я с ними не соглашусь. Корейцы делают что-то совсем свое, приспособленное к очень специфическим местным условиям, втиснутое не только в тел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и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но и в рамки Госплана, который остается очень мощной и влиятельной структурой.

- Последствия этих изменений, "мер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управления" на бытовом уровне, вооруженным взглядом можно увидеть?

Мацегора: Конечно! Самый простой способ - пойти в любой магазин и посмотреть, чем расплачиваются северо-корейцы. В очень многих случаях это - доллары США. Парадокс - в стране самым активным образом используют денежную единицу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ое называют злейшим врагом. Фактически корейская вона сейчас привязана к доллару, и во многом поэтому она стабильна. Ее курс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меняется несколько лет - сейчас это 8200 won за один доллар. А стабильность валюты - это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условий стабильности экономики. Доллар здесь сейчас - это не только признанное средство расчета как на бытовом уровне, так нередко и между предприятиями. Это - средство накопления и сбереж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и у любого корейца в кошельке лежит пять-десять долларов, а то и больше.

-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 прочие санкции влияют на жизнь обычных людей?

Мацегора: Однозначно влияют. Они влияю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гуманитарную ситуацию, на жизнь простых людей. Они меняют многое в их бытовых условиях, в том, с какой интенсивностью им приходится трудиться. Существенно упали поставки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повысилась их цена - с полней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пропали трактора. Землю пахут на волах, работают лопатами. Горожане еще чаще, чем прежде, стали выезжать в сельскую местность на помощь крестьянам. Уменьшилось поступление лекарств из-за рубежа и упало их внутреннее производство, там, где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ввозные компоненты. Ситуация в сфере лечения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просто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ая, поскольку КНДР не может из-за санкций получи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лечебного облучения. Могут привест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примеры того, как сильно санкции бьют по народу.

Причем складывается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именно этого эффекта западные коллеги и добиваются, именно в этом они видят цель рестрикций. Скорее всего, в их воображении все должно пойти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санкции сделают жизнь людей невыносимой тяжелой, народ поднимется, начнет требовать от сво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йти на уступки внешнему давлению, а еще лучше, если вообще скинет нынешнее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Мало того, что эта тактика очень далека от провозглашаемых Западом принципов гуманизма, но она еще не имеет ничего общего с реальностью. Добиться своих целей таким способом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лощадке ни у кого не получится. Я в этом, как кореевед с очень долгим стажем, уверен абсолютно.

У России другой подход. Мы поддерживаем при голосовании и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яем те санкции,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против ракетной и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 КНДР. Речь идет о запрете на поставки сюд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технологий, материалов, оборудования,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в этих целях. Но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о том, что пагубным образом отражается на жизни простых людей.

Иногда приходится разговаривать с западными коллегами-дипломатами, которые удивляются 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расстраиваются, что видимых подтверждений того, что санкции работают, они не фиксируют - люди в КНДР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ать, радоваться жизни, любить, рожать детей, ходить в кино, на стадионы, на улицах горят огни, работают магазины. Я у них тогда спрашиваю: "А вы что, хотели бы, чтобы на улица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ородов женщины, мужчины и дети умирали от голода? Чтобы все разваливалось и рушилось? Чтобы только ветер гулял по безлюдным дорогам обессиленной Кореи? В этом, что ли, ваш замысел?". Нам с ними все-таки иногда очень трудно понять друг друг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 5 стр.)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и Россия создадут горячую линию связи между ВВС

РК и Россия намерены подписать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по вопросу создания горячей линии связи между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ми силами двух стран. Об этом 8 октября в ходе парламентской инспекции сообщили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К прилагает усилия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случаев нарушения опознавательной зоны ПВО (KADIZ) иностранными самолётами.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переговоры по установлению горячей линии связи начались ещё в 2004 году, 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по меморандуму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16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тороны продолжают обсуждение сроков и формата подписания документа. На 22 октября намечено проведение заседания совместного во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Также идёт рабо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горячей линии связи с Китаем.

Пхеньян против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а о его ракетных запусках в СБ ООН

США и их последователи должны помнить, что если они поднимут вопрос о мерах самообороны, предпринимаемых Пхеньяном, это подтолкнёт КНДР к защите свое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журналистам глав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при ООН Ким Сон, выступив категорически против обсуждения в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опроса 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ных запусках.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за «нечистыми действиям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Франции и Германии стоят США». Обсуждение ракетной проблемы было инициировано тремя европейскими странами, которые заявили о нарушении Пхеньяном резолюций СБ ООН, запрещающих использовать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роведёт закрытое обсуждение нового ракетного запуска 9 октября.

По всему Сеулу будет доступен бесплатный Wi-Fi

В 2022 году по всему Сеулу будет доступен бесплатный Wi-Fi. 7 октября в столичной мэрии сообщили о планах созд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сеть связи, отказавшись от нынешней аренды ресурсов круп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компаний. Для этого в течение трёх лет в проект будет вложено примерно 100 млрд вон или 83,5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етью бесплатного Wi-Fi охвачено 31% территории столицы с жилыми домами. После создания собственной сети показатель увеличится до 100%. Исключением станут только частные дома и част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площади. При этом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стандарт связи следу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Wi-Fi 6, что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высокую скорост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Сеть будет подключена и к интернету вещей, в частности к стоянкам или умным фонарям, которые в случае опасной ситуации автоматически будут сигнализировать об этом в полицию.

Исполняется 60 ле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трасли электроники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60 ле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трасли электроники,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главной движущей сил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экономики. В этой связи 8 окт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электроники (KEA),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KSIA) и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дисплеев (KDIA) провели торжественную церемонию по этому случаю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ок и конференций KOEX.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40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их числ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Ли Нак Ён, министр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Сон Юн Мо и другие.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выставочном центре KOEX открылась юбилейная 50-я выставка Korea Electronics Show, которая продлится по 11 октября. 444 отечественные и зарубежные компани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вои разработки в сферах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нтернета вещей, виртуальной и дополненной реальности и других составляющих четвёрт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а также умную бытовую технику, новейшие разработки для ум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электронику пришлось 36%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кспорта. С 1988 года она занимает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объёму экспорта среди всех отраслей. РК является мировым лидером по поставкам смартфонов, телевизоров,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других подобных товаров.

Открыт доступ к «секретному острову» Чодо

С 17 сентября для широкой публики открыт доступ к острову Чодо в городе Кочж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который ранее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обещал вернуть народу. Остров Чодо был летней президентской резиденцией с 1972 года. Тогда же были введены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роживание на острове и его посещение.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го протектората над Кореей там размещалась военная база. И вот теперь закрытый остров открыт всем желающим.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там подготовлены пляж и дорога для прогуло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ун Чжэ Ин выполнил одно из своих предвыборных обещаний.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туристы могут подробно осмотреть остров в течение полутора часов. Сама территория летней резиденции и военные объекты исключены из списка общего доступа. От ближайшего порта Чанмок до острова дважды в сутки, пять дней в неделю ходит пассажирское судно.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острова ограничено - 600 человек в день. Мэрия города Кочжэ намерена создать на острове 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RKI)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на 4 стр.)
- С экономикой более-менее определились. Какова ситуация в сфере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Мы все прекрасно помним, какие были разные прогнозы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ждёт КНДР при новом лидере Ким Чен Ыне...

Мацегора: Абсолютно однознач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здесь абсолютно стабильна. Государство, госаппарат самым плотным образом контролирует все сферы жизни. Состояние любой системы и ее управляемость можно проверить на том, как реализуются указания высш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Так вот, здесь указания руководства выполняются мгновенно и в полной мере. Контроль за этим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очень тщательно и эффективно.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является абсолютным и безусловным лидер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нтроль подкрепляется контролем по партийной линии и по лин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лужб. Система выстроена четко, она работает слаженно и без сбоев.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 идеология и политика, в этих сферах не допускается никаких отклонений от генеральной линии.

А вот в экономике -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от политики мы вновь вернулись к экономике - здесь все сейчас во многом гораздо либеральнее, чем было раньше. Люди, у которых есть инициатива и предприимчивость, чувствуют себя очень неплохо, они успешно используют появившиеся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Свободы в хозяйственных делах сейчас здесь гораздо больше, чем было раньше, и это дает свои очевидные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Я сравниваю ситуацию даже не с тем, что было при Ким Чен Ире -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е и отце нынешнего лидера, но даже с первыми годами правления самого Ким Чен Ына.

Повторюс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истема в целом и большинство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в отдельности демонстрируют в этом плане феноменальную живучесть. Они умеют подстраиваться под новые условия, приспосабливаться к новым требованиям,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новым запретам и санкциям.

Если вы поедите по пригородам Пхеньяна, то удивитесь, сколько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оявилось новых небольши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производств. Это наглядный пример того, как врожденная предприимчивость, которая у каждого корейца, какется, в крови, находит свое практическое воплощение.

Им д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менить эту предприимчивость, и они ее прилагают. Государство, конечно, контролирует частный бизнес. Хотя, нет, я бы назвал е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кооперативным бизнесом" - так будет правильнее. Так вот, этот контроль сейчас вполне умеренный, он не душит производство, дает ему развиваться, а людям - зарабатывать деньги.

- В чем тогда главная проблема этого нового сегмента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ый вы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и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кооперативный бизнес"?

Мацегора: А вот главная проблема у них чисто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ли скорее финансовая. Это низкая платежеспособ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нехватка у подавляющей части населения средств на более активную покупку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Отсюда - низкие доходы для бизнеса, низкая рентабельность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едостаток средств для его расшир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если резюмировать, то главные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ки КНДР - это нехватка инвестиций, что не позволяет создавать круп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реализовать масштабные проекты, в том числе в част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низкая платежеспособ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Причин этих проблем немало - это, конечно, жесткие санкци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ддерживать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ь страны, ощущаемые до сих пор последствия разрыва связей с СССР и другими соц-странами, а также ряд других нерешенных вопросов.

-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если снять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инвестиции, приток капитала, то с учетом достаточно либерального подхода высш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к экономике и благодаря корейской предприимчивости можно будет ожид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ывк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Мацегора: Да, я в этом уверен. Конечно,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нынешн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КНДР имеет свои ограничители. Один из них - ее изолированность от миров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системы. Однако экономика страны еще далеко не дошла до этих крайних пределов, она даже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и рамках может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причем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Когда эти пределы будут достигнуты,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динамику, потребуются, видимо, какие-то гораздо более радикальные меры по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экономики. Однако сейчас наши корейские соседи имеют еще очень больш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куда они могут двигаться при сохранении в основном нынешне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модели.

- Теперь вопрос о ситуации в сфере обеспечения насел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в этом году. Структуры ООН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опубликовали доклад, в котором сказали, что голод или сильное недоедание грозит не менее 40 процентам населения КНДР, что ситуация очень сложная и наихудшая за многие годы. Есть эксперты, которые оспаривают эту точку зрения, считая, что вольно или невольно специалисты ООН сгустили краски. В этой связи интересно ваше мнение: ждёт л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й кризис или же не все так плохо?

Мацегора: Надо признать, что дл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ынешний год оказался очень неудачным. Прошлый год был нехорош, а этот - еще хуже. Особенно плохо обстоят дела с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сильнейшей засухи урожаем кукурузы, хотя с рисом не так все печально.

Впрочем, были года и похуже. Вспоминаю, например, 2015 год, когда власти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открыть шлюзы и запустить в реку Тэдонган, на которой стоит Пхеньян, морскую воду,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уровень воды в среднем течении. Тогда вода стала солоноватой, что было не очень хорошо для сельхозкультур. То есть, повторюсь, нынешний год с точки зрения урожая неудачный, корейцы нуждаются в помощи, и им надо помогать, но катастрофы, я надеюсь, не произойдет.

Государству удается сохранять стабильными цены на зерно на рынках. Посмотрим, что будет в декабре, когда завершится сбор урожая и станет ясно, сколько его удалось заложить в хранилища. Верим, что масштабного кризиса не произойдет, голода не случится.

- С вашего позволения перейдем к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ак вы видите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ситуации вокруг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ключая диалог между США и КНДР?

Мацегора: Все ожидают, что, в конце концов, состоятся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контакты, где и будет обсуждаться эта проблема. Дата и место эт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ка неизвестны, американцы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ждут решения северян. Именно Пхеньян принимает решение и играет активную роль в это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 танго".

- То есть вы считаете, что руководство США и лично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контактах с КНДР и в проведении очередного саммита для обсуждения этой проблемы?

Мацегора: Вашингтон, безусловно,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 том, чтобы найти выход из тупика, в котором оказался процесс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ЯПКП). Актуальности этой теме добавляет предвыборная ситуация в США - прорыв или провал на переговорах с северокорейцами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епени может на ней отразиться, и нынешний президент США, конечно, хотел бы, чтобы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векторе у него все получилось в лучшем виде.

Другой вопрос, что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задача суперсложная, решить е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епросто. Причем причина этого сейчас, когда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о готовности двигаться в направлени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не столько в северных, сколько в американцах, в их нажимных, санкционных подходах и тянущемся за ними шлейфе аннулирован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ов.

Дело в том, что кажд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ША начинает работать над этой проблемой фактически с чистого листа, с новой командой, которая не владеет совсем или слабо владеет ситуацией, не учитывает опыта и практики своих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Вот и на этот раз Дональду Трампу и его переговорщикам потребовалось целых три года, чтобы понять (надо надеяться, что это наконец произошло): одним махом ЯПКП не решить, к этой цели надо идти поэтапно, предпринимая шаги навстречу оппоненту. Теперь нашим американским коллегам следует наконец уяснить, что полную, необратимую и проверяемую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ю, даже теоретически, от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ожно требовать, только предлагая ей взамен всеобъемлющие, убедительные и необратимые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Пхеньяне к этому добавляют еще отказ от враждебности и построение отношений доверия, что также должно носить необратимый характер. Сделать это очень непросто.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Россия и Китай готовы подставить плечо, они предлагают свой план действий, призванный помочь разрешить эту сложнейшую задачу.

- КНДР - страна восточная, своих особенностей хватает. Как вам здесь работается?

Мацегора: Как я уже говорил, к россиянам здесь относятся очень хорошо, и мы чувствуем это на себе. Я бы сказал, что 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относятся к нам гораздо лояльнее, чем к другим иностранцам, нам доверяют. Мы гораздо свободнее в плане перемещения по стране, причем,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путешествуем без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Это позволяет нам не сидеть на месте в Пхеньяне, а выезжать в провинции, на море, в горы, в другие города.

Может быть, наша посольская молодежь скучает без больших тусовок, без концертов современной музыки, без столичного шума и яркого света, без всего того, что отличает современный европейский город. Пхеньян, конечно, в этом смысле гораздо спокойнее, я бы сказал, патриархальнее. Зато он абсолютно безопасен, здесь чистый воздух, великолепная природа.

В нашем посольстве около двадцати дипломатов,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они являются корееведами по образованию - выпускниками университетов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ладивостока, Новосибирска, Казани и Пхеньяна. У нас мно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но еще мы усердно и увлеченно изучаем Корею. В этом смысл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КНДР - крупнейший 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пробле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ш опы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 части изучения этой страны уникальны, и мы эт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ользуемся. Вот так и живем, кто два-три года, а кто вот уже 30-40 лет -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оссияне или российские северокорейцы, как кому угодно.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ткрывает стране свои уник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 Москве со 2 по 8 декабря в третий раз пройде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ярмарка» – одно из самых ярких уличных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зимней поры последних двух лет. В этом году Ярмарка проводится на Новом Арбате на всем протяжении глав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улицы Москвы, ожидается до 70 000 посетителей.

Здесь появятся несколько уличных сцен, на которых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дня будут выступать музыкальные и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этнические и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специально прилетевшие на мероприятие со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анимационных павильонах ежедневно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во время которых посетители познакомятся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промыслами и творчеством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региона. Также в программу войдут интерактивные лекции, посвященные культуре, развитию, истории и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езентации продук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Ассортимент торговых шале обещает быть еще более богатым и разнообразным, чем в прошлые годы. Посетители Ярмарки с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привезенные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орепродукты, рыбу, которую невозможно найти в московских магазинах, чайные сборы из таежных ягод и трав (более 20 наименований), сувениры и крафтовые изделия народных промыслов.

Ярмарка покажет своим гостям современные арт-объекты, привезенные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торые расположатся вдоль всего Нового Арбата, «изюминкой» площадки станет интерактивная зо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тайга» – имитация фрагмент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ландшафта в центре Москвы, для чего будут на улице «посажены» живые горные сосны, кедровый стланик, мхи, натуральные камн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приоритет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а весь XXI век. На Ярмарке будут расположены сенсорные интерактивные экраны, с помощью которых каждый сможет узнать об уника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очтениях для бизнеса, размер подъемных для учителей и врачей, молодежь, безусловно, заинтересует возможность купить дом или квартиру в кредит по рекордно низкой ставке 2% годовых - и еще о многих возможностях для туризма, образования, бизнеса и саморазвития,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молодость России!

Молодежь столицы познакомится с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на фестивале

Он пройдет 12-14 декабря в ЦВК «Экспоцентр».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Дн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приглашает молодежь - абитуриентов, студентов,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людей творческих профессий. Здесь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уник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11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х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туристиче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и культурные традиции.

Юноши и девушки смогут узнать о сниженной до 2 процентов ставке по ипотеке и кредитам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а на земельном участке,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м по программ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о льготах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вузы и о многих других возможностях, открывающихся перед молодыми на современн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редложит гостям три содержательных направления:

- Туризм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это не просто отдых, это настоящее приключение – путешествие на другую планету с уникальными видами, климатом, природой и культурой.

- Образование и работа – в этом году акцент будет сделан не только на рабоч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но и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ые для региона кадры – врачей и учителей.

- Культура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это новый центр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креативного класса: в регионе активно финансируются проекты в сфере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развиваетс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творчества.

На фестивале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смогут встретиться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из ДФО, а в рамках деловой программы состоятся лекции от ведущих бизнесменов,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политиков, у школьников Москвы 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Олимпиаде «Ближе к Дальнему» и выигр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10 баллов к результатам ЕГЭ.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событий Фестиваля станет Больш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вест, 10 первых победителей которого получат бесплат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утевки в заполярные и экзотические регио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 музык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Двигай на Восток!» 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Держи краба!». На музыкальном фестивале будут выступать современны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группы, а на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м фестивале «Держи краба», помим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фудкорта, гостей ждут кулинар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именитых шеф-поваров.

В мероприятии такж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федеральные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ыбоводные заводы на Итуруп позволили значительно нарастить уловы лососевых

Да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на остров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лососевые рыболовные заводы, оценил темпы прохождения путины, а также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Сейчас на Итуруп работают 9 рыболовных заводов. Здесь применяется уникальная технология выращивания молоди кеты и горбуш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морской воды и рукотворных морских «лагун». Это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шае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ыбозаведения, что доказывают рекордные улов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е взяли около 20 тысяч тонн лососевых, что в тысячу раз больше уровня улова 10-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Итоги этого года пока подводить рано, но уже добыто свыше 11 тысяч тонн.

В Рейдово глава области посетил строящуюся школу. Возведение здания идет с опережением сроков. В школе будут расположены учебные кабинеты, мастерские, библиотека и спортивный зал. Также проек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медицинский и пищевой блоки, обеденный и актовый залы. На пришко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разместят зону отдыха, игровую площадку и стадион. Трехэтажное здание должно быть сдано «под ключ» в ноябре 2021 года, но главе региона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при текущих темп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а школу смогут сдать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раньше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срока.

– Конечно, новая школа в селе просто необходима, но при ее строительстве важно соблюдать все технические моменты. Руководство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должно вести постоянный контроль за работой подрядчиков, держать тесную связь с проектировщиками. Объект должен быть построен быстро, но качественно,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мотрел губернатор и строящиеся жилые дома в селах Рейдово и Китовое. Всего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возводят 4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Он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переселения граждан из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а также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в район нов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сле их сдачи проблема ветхого жилья в селе Рейдово будет ф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решена.

Еще одним объектом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стала пешеходная зо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й продолжится вдоль морского берега между Курильском и Китовым. В проект входят территории для отдыха, смотровые площадки. Здесь ж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автобусные остановки.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пешеходной зоны - почти 3 километ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данный объект необходим как туристам, так и самим курильчанам. Появление пешеходной зоны улучшит облик города и станет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Напомним, что рабочие поездки губернатора в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вляются регулярными. В ходе них принимаются важные решения, касающиеся вопрос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орог и ремонта дворов.

Фестиваль «На островах чудес» открылся на Сахалине

В течение 10 дней островитяне будут оценивать спектакли из 26 кукольных театров мира. В программе – постановки России, Аргентины, Франции, Турции, Испании, Ирана, Румынии, Молдовы и Беларуси.

Открытие пятого фестиваля «На островах чудес» состояло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атре кукол. От имени руководства региона зрителей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 Отрадно, что этот 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т под эгидой Года театра в России, объявле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нашей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Антон Зайцев. – Нам покажут еще неизвестные д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зрителя работы не только традиционных, но также уличных и драматических театров. Это уникальное и значимое событие,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все больш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удут вовлечены в театральную жизнь.

Показы спектаклей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йдут на малой и большой сценах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и Чехов-центра. В репертуаре постановки для детей, семейного просмотра и взрослой аудитории. Всего – 28 работ.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организованы круглые столы, лекции и мастер-классы. Также состоятся выездные спектакли в городах юж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Невельск, Корсаков, Долинск, Холмск).

Фестиваль «На островах чудес» предполагает и спец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Например, спецпроект «Театр рав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Спектакль Москов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Майская ночь» проходит в формате «с закрытыми глазами».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вышению доступности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для незрячих и слабовидящих людей.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спецпроекта «Фестиваль на улицах города», 7, 8, 10, 13 и 15 октября в 19:00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А. Гагарина пройдут выступления уличных театров. Перед зрителями выступят Театр – лаборатория Елены Порошиной «Команда +» (Россия, г. Серпухов), московский авторский театр «Эскизы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и другие.

Отметим, «На островах чудес» помога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театральной жизн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вручила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руководителю Гродне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заслуженному деятелю искусств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Олегу Жюгжде (Республика Беларусь, г. Гродно)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руководителю театра «Эжен Ионеско» Петру Вуткарэу (г.Кишинев).

– Ваш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энтузиазм и неослабевающая энергия позволили поставить на сахалинской сцене уникальные спектакли, получившие самую высокую из наград – признание и любовь зрителей, - сказала Нонна Лаврик. – Выражаю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твор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артистами и художникам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Вами сохранятся и получат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в новых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ах, значимых как для культур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ак и для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 целом.

Фестиваль завершится 16 октября. Он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Вторые зимни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пройдут на Сахалин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мет II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в 2021 году. Такж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прос провед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енства мира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среди юниоров в 2024 году.

Решение о месте проведения игр принималось на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й коллеги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ое прошл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Ольги Голодец. Право проведения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щищ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 Сахалин готов принимать у себя соревнования различного уровня.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ует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острова и в целом глоб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спортивной отрасли в регионе. Впереди у нас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среди спортсменов с поражением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и слепых,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феврале 2020 года, а в 2022-м нас ждет финал. Мы порадуем остров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и болельщиков спортивными играми «Дети Азии» в 2021 году, а в 2024-м готовы принять первенство мира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Уверен, что эти значимые крупные события пройдут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одемонстрирует всему миру свои безгранич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 спорте, – подчеркнул Антон Зайцев.

Напомним, I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прошли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8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20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боролись за медали в 8 видах спорта – биатлоне, сноуборде,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лыжных гонках, хоккее, лыжных гонках, прыжках с трамплина и шорт-треку.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ходьбы отметили на Сахалине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состоялся 6 октября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Он проходит уже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и собирает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 Начиналось всё со 100 челове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х было уже 1000. В этом - еще больше. Здорово, что столько людей находятся на здоровой волне. К слову, каждую неделю сахалинцы собираются на бесплатных зарядках, занятиях по горному велосипеду, гиревому спорту и фитнесу.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и вы! А сегодня я желаю всем успешно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ю и получить заряд энергии, бодрости и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Праздник начался с традиционной зарядк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юз 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орта», которые еженедельно собирают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сотни островитян.

– Мы сегодня провели зарядку «ходьбы». Размяли голени, попрыгали. Это была легкая версия. Ее может выполнить человек любого возраста. К нам часто приходят целыми семьями и пенсионеры. Каждый сам выбирает нагрузку и если нужно, то пропускает подход, а потом снова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 отметил тренер-общественник Андрей Мирош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ишли более 1200 человек. Подъем на канатной дорожке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ка был бесплатным, поэтому добраться до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комплекса смогли все желающие. Как раз оттуда стартовали участники,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по маршруту до верхней площадки. Всего около трех километров. На финише всем вручили памятные значки.

– Отличный праздник. Мы приехали сюда из Корсакова всей командой,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в спор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Флагман». Всегда стараемся много ходить, в нашем возрасте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и полезно. Движение – жизнь, – делит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енсионерка Ольга Киселева.

Для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подготовили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В зоне питания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отведать плов с бараниной, овощной салат и выпить чай из азербайджанских трав. Насладиться блюдами сахалинцы могли сидя в чил-аут зоне, где разместили кресла-мешки и столики.

Дети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различных активностей. Например,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комплекса развернулась творческая лаборатория, где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раскрасили логотипы праздника на футболке. Свои творения они забрали домой.

– Спорт –это сила, поэтому мы не только сами занимаемся, но и привлекаем детей. Сегодня всей семьей пришли на праздник. Такая дружеская и легкая атмосфера здесь. Дети довольны, и я тоже,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лена Смекалова.

Кроме этого, юные сахалинцы раскрасили огромный баннер с символикой праздника. Взрослые в это время заняли себя настольными играми, а также соревнованиями по армрестлингу и армлифтингу. В это время на площадке работали фокусники, а на сцене развернулась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с выступлени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артистов.

Завершился праздник соревнованием по перетягиванию каната. Его победителей наградили медалями и кубками, а также вручили подарки от партнеров и спонсоров событ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통계국, 내년 전국 인구 조사 준비 실시에 발표

(1면의 계속)

현재의 추산에 따르면, 약 1억4천6백만 명의 시민들이 러시아에 영구 거주 중이며, 약 5천 5백만 가구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통합 인구 조사의 주요 통계 단위이다. 분석가들은 노숙자나 거리의 길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 등록할 계획이다.

러시아 통계청은 이 엄청난 양의 작업을 거의 36만명의 임시직원들에게 맡길 계획인데, 이는 2010년에 비해 약 1.5배 감소했다. 임시직의 감원은 디지털 기반 작업 덕분이었다.

이는 현대적 기획의 차별화된 특성은 다중 채널방식에 있다. 세 가지의 측정 방법이 제시되는데 이는 gosuslugi.ru 포털 이용, 조사원의 질문지에 직접 응답, 다기능 센터의 고정사이트 이용이다. 러시아 전체 인구 집계를 위한 상황 통제센터가 러시아 통계청에 설립되었다.

이 통제센터는 모든 현대 기술들을 갖추고 있으며 조사자들에게는 전자 태블릿과 카드가 지급된다. 종이 서류는 사용되지 않고 조사자들의 전자 태블릿은 러시아 조사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다. 여기에 처음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하여 높은 품질, 분석의 깊이, 그리고 더 신뢰할 만한 통계를 제공하게 된다.

모든 조사된 정보들은 특별히 개발된 디지털 플랫폼 <인구>에 축적되고 이러한 정보들은 각 부서의 직원들이 처리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개인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0년 말까지는 첫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 결과는 2021년 2월에 발표되며, 심층 분석 결과는 2021~2022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할린 통계국 이리나 램제코바 국장은 사할린 지역 통합 인구 조사에 대한 절차에 대해 밝혔다. 인구조사 절차는

세 가지 형태로 시민들은 개인 및 주택 관련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세 번째 설문지는 러시아 영토에 임시로 거주 중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이들은 주로 관광객과 외국인 학생들이다.

사할린 통계국장은 이러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순전히 자발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리나 램제코바 국장은 "통계 당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정보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생계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월급, 개인사업, 자영업, 장학금, 사회복지, 연금일 수 있다. '빅 데이터 기술'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직업 종사자와 복지가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조사 한 건이 실제 노동 이동의 도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약 150만 명의 러시아 국민들이 근무 변경으로 거주지를 이동한다. 연방 사회학 연구를 통해 해결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인구의 민족 구성이다.

입수된 자료들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고 인구의 이동성을 예상하고, 명확하게 어떤 지역이 침체되어 있는지, 일자리를 찾기 힘든 지역이 어딘지 알게해 줄 것이다. 언론과 정부의 요청으로 현재 국적에 대한 자료는 인구조사에서만 제공된다.

사할린 통계국장은 "우리의 자료에 따르면 100개 이상 국적의 사람들이 사할린 주에 거주 중이다. 이들은 주로 러시아인, 한국인, 우크라이나인, 타타르인, 벨라루스인이다.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은 약 3천 명이다."라고 했다.

사할린 통합 인구 조사 작업에 참여하는 직원 1500명 중 900명 이상은 직접 집을 찾아 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조사원들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혹은, 조사원의 집 방문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정해진 장소(다기능 센터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사할린 통계국은 이를 위해 152명의 직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제시해야 할 정보 목록은 인구조사 직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본사 기자)

2 0 1 9 U N I T E D F A M I L Y C O N C E R T

UNITED
FAMILY CONCERT

러시아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하는
유나이티드 가족음악회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일 시 |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 6시30분
Дата и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 18.10.2019г. (пятница) 18:30

장 소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미라거리83A)
Место |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Мира, 83A)

주 최 | 주 사할린 영사관, 사할린 한인협회
При поддержке | Фонд культуры United

주 관 | 유나이티드문화재단
Организатор |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Владивостоке,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제9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 '개막'

(3면의 계속)



세계한인상공인 총연합회 김덕룡 이사장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재외국민 참정권은 해외동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주제"라며 "시대의 큰 흐름을 읽고 있는 동포 언론인들의 식견과 해안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한반도 평화담론에 해외 한인언론인들이 해야할 역할을 강조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해법의 전문가'로 꼽히는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해외 동포들이 주재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사, 칼럼 등 다양한 방식의 언론보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정책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 변철환 재외동포 영사기획관, 재외동포재단 김봉섭 홍보부장 등이 2019 세계한인언론인 국제 심포지엄의 개막에 축하인사를 전했다.

10월 11일까지 서울, 경남 등지에서 개최

제9회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세계한인 언론인들은 대회 둘째 날인 8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재외동포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개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또한 '제21대 대한민국 총선과 재외국민 선거'를 주제로 한 공동포럼을 개최,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과 비례대표 선출의 중요성 등 재외국민선거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밀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9일에는 경남 진주시와 산청군에서 유등축제와 한방약초축제를 돌아보고 10일 함양으로 옮겨가 '2020 산삼 향노화엑스포'의 준비현황을 취재할 계획이다.

10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서울과 경남 진주, 산청, 함양 등에서 열리는 2019 제9회 국제심포지엄은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서울특별시, 경남 진주시, 함양군, 산청군 등에서 후원한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취재단]
글_최윤주 기자 | 사진_김종민 · 배영훈 기자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Маленький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од выиграл 1,5 миллиона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Томарин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стал призёр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ая муниципальная практика». Обойдя двести конкурентов, он занял третье место в одной из номинаций и выиграл 1,5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которые пустят на реализацию идей жителей.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бласти, конкурировал Томари с 204 другими городами из 62 регионов. Заявки, поданные на конкурс, рассматрива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Ф. В итоге небольшой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од стал третьим в номинации «Обеспечение эффективной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жителями».

Томаринский район — небольшой, он включает 11 населённых пунктов, в которых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8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днако, отмет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его можно назвать пионером по мног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Например, там действовали ТОС(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самоуправление)ы еще до того, как в регионе начали массово создавать такие объединения. И к концу 2017 года, когда други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только раскачивались, в Томаринском уже было семь ТОСов, охватывающих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жителей округа. Это лучший показател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роме того, в 2016 году в Томари разработали программу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члены ТОСов смогли получать средства на свои идеи.

В 2018 году в процесс втянулись и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Он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областном проекте «Молодежный бюд-

жет». Благодаря им в Томари теперь есть площадка для воркаута, в Ильинском — велотрек, в Красногорске — площадка при школе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аздников, а в Пензенском — футбольное поле.

Деньги, полученные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потратить на воплощение в жизнь инициатив, которые озвучивают жители. Что это будет, пока неизвестно. Но, например,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омаринцы обозначили наиболее важ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 ремонт дорог, новые детски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мест для отдыха.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 달러 미신고로 승객 체포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 세관원들은 서울에서 입국한 승객에게서 미신고된 미화 2만860달러를 발견했다. 러시아 승객은 배낭에 돈을 넣은 채로 운반하려다 세관 검색 중 엑스레이에 발각되었다고 세관 홍보실이 전했다.

"이 청년은 외화 현금을 확인하고 서울에서 출국시 작성한 외국어로 된 신고용지를 세관원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미화 1만 달러 이상 운반 시 러시아의 세관 법령과 러시아 세관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 승객이 소지한 현금 총액은 미화 20,860 달러에 해당해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 세관국은 승객과 관련하여 러시아 행정법 제 16조 4항에 따라 개인의 현금이나 현금 상당의 도구에 대한 불확실한 신고 또는 미신고에 대한 법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1만 860달러가 압수되어 사할린 세관 물품보관소에 물적 증거를 위해 보관되었고 1만 달러는 승객에게 반환되었다.

Пассажира с незадекларированными долларами задержали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моженники обнаружили у пассажира, прибывшего из Сеула, незадекларированные 20 860 долларов США. Россиянин перевозил деньги в рюкзаке, который был обнаружен на рентген-аппарате при прохождении тамож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сообщает ИА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кой таможни.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подтвердил наличие валюты и предъявил таможенникам декларацию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которую он заполнил при вылете из Сеула. При этом о российских таможенных правилах о подаче декларации в таможенные орга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 перемещении валюты свыше 10 000 долларов США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не знал. Сумма наличных денег, обнаруженная у пассажира при досмотре, составила 20 860 долларов США, следовательно, подлежала письменному декларированию",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пресс-службы.

В отношении пассажира Сахалинская таможня возбудила дело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правонарушении по статье 16.4 КоАП России — недекларирование либо недостоверное декларирование физическими лицами наличных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 (или) денеж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10 860 долларов США изъяты и помещены в камеру хранения вещественных доказатель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таможни. 10 000 долларов США возвращены пассажиру.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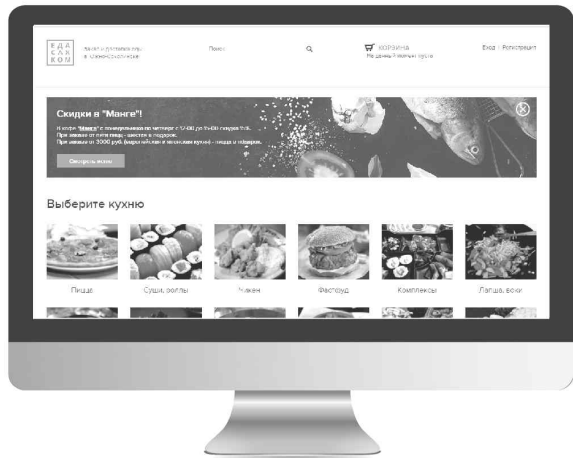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еда.сах.ком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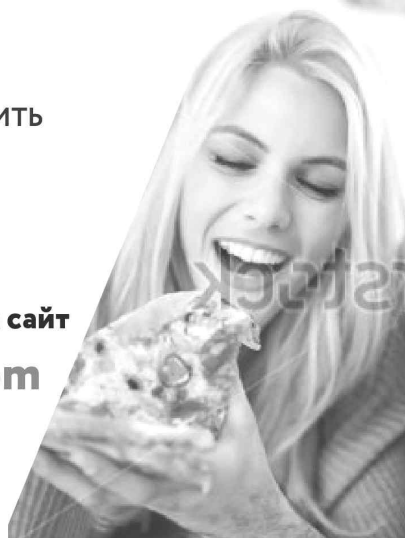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з.а.н.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